

매일묵상일기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사람들

2025년 8월 16일(토)

- 찬송 (486장)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겔 18:1~20) 다함께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겔 18:20)

● 묵상자료 인도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속담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회자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범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징계의 이유를 조상들에게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4).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구의 잘못이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3종류의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 개개인의 범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며, 악한 길을 떠나 진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을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5~9).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9). 둘째, 의인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의와 관계없이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 값을 치루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3). 마지막 이 악한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의롭게 산 경우입니다. 악한 길을 걸은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이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걷지 않고 할아버지가 걸었던 공의의 길을 걷는다면(14~16),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삶과 무관하게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17), 반드시 살려니와” (19)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이 조상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 어려움을 당할 때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며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 기도 인도자

공의의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